

낙농경영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방향

충남대학교 낙농학과 교수
농학박사 박종수

I. 머리말

1962년 낙농 장려 10개년 계획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낙농장려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낙농업은 각종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큰 장애없이 양적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국가경제의 국제화 과정속에서 중대한 전환기적 시련에 직면해 있다. 우유 및 유제품은 국내의 가격차가 크고 국제경쟁력이 낮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서 1996년사이에 전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여파로 나타나고 있는 농촌인력난과 높은 임금, 높은 지가로 인한 지대의 부담, 환경 위생에 대한 관심고조와 오폐수 처리비용의 증가 등은 낙농업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낙농농가는 열악한 경영여건에서 세계의 낙농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2중고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라도 낙농업은 위축되거나 포기될 수 없다.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우리나라 낙농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낙농산업 관련자 모두의 바램일 것이다. 여러

관련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1차적인 주역은 낙농가이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얻는 손해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낙농가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낙농가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낙농경영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전략의 방향을 요약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낙농경영의 안정화 전략

1. 원유생산의 차별화

국토는 협소하고 토지 이용과 효율마저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우리의 낙농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의 차별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고품질과 안전성이라는 무형의 부가치의 창출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급변해가는 소비자의 식품소비성향을 충족시켜 나가고 대외적으로는 수출국에 비해 불리한 생산여건을 품질에 의해 극복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차별화는 자칫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국내의 낙농이 위축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차별화는 경영의 효율과 경쟁의 추구를

통한 비용절감이 수반될 때에 비로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원유의 위생등급별 차등가격제가 이미 도입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위생적인 양질의 원유는 곧 원유에 대한 농가수취가격과도 직결된다. 그러나 원유의 위생적 생산은 단순히 원유대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추진되어서는 아니되고 낙농가가 소비자에게 베푸는 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흔히 시유는 우유자체가 갖는 상품적 유통적 특성 때문에 자칫 수입이 불가능한 농산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마시는 우유의 비중이 70% 이상인 우리나라 우유시장은 수입개방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소비자의 우유에 대한 맛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유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턱 없이 오른다면 멸균우유가 수입되거나 환원우유가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우유의 맛문화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가에서부터 양질의 위생적인 우유를 생산하는 원유생산의 차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우유와 유제품의 차별화는 생산단계의 차별화와 더불어 가공단계의 차별화 및 비용절감노력이 수반될 때에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구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가와 소비자를 직결시키는 생우유의 시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 농가에서도 대규모 목장에서 위생적으로 원유를 생

산하여 신선한 원유를 농가자체에서 직접 처리한 후 즉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생산·가공·유통의 통합체계의 수립을 시도하였는바, 이 또한 차별화의 사례이다.

지금까지 낙농업을 영위해온 목적이 우유의 생산과 판매증대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데 있었다면, 오늘날 낙농경영의 목적은 우유와 유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과거에는 우유의 수요가 생산을 초과하여 시장이 낙농가중심시장의 성격을 띠었지만, 오늘날 시장은 각종 기술진보로 말미암아 생산증대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세계적으로 과잉생산이 이루어 짐으로써 소비자중심시장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적 낙농경영자는 생산된 원유를 판매한다는 사고에서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우유를 생산하여 판매한다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소비자는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신선한 고품질의 우유를 선호하는데 양만을 추구하는 생산을 계속한다면 절대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소비자를 의식하고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충족시킬 수 있는 원유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생산의 차별화다.

2.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국내의 원유생산을 위한 여건이 수출국에 비해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쟁력향상을 위해서는 생산비절감 노력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향상과 더불어 생산요소의 비용절감이 필수적이다.

첫째, 생산성향상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

육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두당산유량의 증대와 노동절약적 기술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규모확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절약적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히 낙농업은 3D산업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최근 농촌노임의 상승과 인력난에 따라 노동절약을 위한 자동화 시설과 기계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두당산유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능력이 우수한 젖소의 확보, 저능력우의 과감한 도태, 능력검정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등과 같은 젖소개량사업과 합리적인 사양기술체계의 확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요소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값싼 사료자원 개발, TMR사료의 이용, 농기계의 공동이용, 공동방목장과 육성우목장 운영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물론 정책적인 차원에서 낙농기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의 철폐, 사료곡물의 수입관세 및 유통사료에 대한 부가세철폐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산물사료의 공급확대 등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신기술과 신경영기법의 적극적인 개발

낙농경영을 위한 생산여건이 수출국에 비해 지극히 불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미래의 원유생산은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기술집약적 생산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개발을 통한 비용절감의 가능성은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신기술의 개발은 불리한 토지조건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의 한국낙농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는 최근 낙농선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정란이식기술과 우유생산촉진제의 개발 및 보급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외에도 컴퓨터를 활용한 각종의 노동절약적 기술은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 이같은 신기술과 신경영기법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의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 이는 개별경영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과 경영내용의 일부를 협동조합 등의 서비스에 위탁하는 역할분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정란이식기술의 위탁, 공동육성우 목장운영 등을 통해 낙농가의 개별적인 투자가 없이도 새로운 기술 및 경영기법의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신기술개발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함과 아울러 공익성을 지님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해서는 낙농가의 자조적 단체인 협동조합과 정부의 이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국 협동조합이 이러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이 낙농가들의 지원에 달려있다. 물론 이러한 공익적 사업은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신기술과 신경영기법 개발에 대한 낙농가의 관심과 의욕이 전제되어야 한다.

4. 지속적 낙농

최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농업에 대한 또 하나의 변화가 조용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하여 농업이 자연자원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구미의 농업은 규모 확대와 경

영의 집약화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그 결과 주요 농산물은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되었고, 동시에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농업생산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농업을 환경보전과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이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명제 아래 그동안 생산성 향상에만 전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구적인 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보다 안전한 식료품을 섭취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농업의 환경적인 측면이 중요시 되고 있다.

농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개별 경영조직에 의한 사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으로서의 농업이고 다른 하나는 국토의 생활 공간에 공공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와 환경재로서의 농업이다. 전자는 국민경제에 대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후자는 농업이 갖는 비시장적 기능을 말한다.

지금까지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의 농업의 흐름을 보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기능은 과도하게 달성되었고 이로 인한 과잉농산물 때문에 국제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되기 시작된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농산물의 무역질서가 요구되었고 이것이 곧, 가트의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타결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편에서는 농업의 비시장적 역할을 강조

하고 이에 따라 구미 여러나라의 농촌, 농업현장에서는 농업이 자연환경보전과 조화할 수 있고 지속이 가능해야 한다는 소위, 지속적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의 방향모색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속적 농업에 대한 관심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히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축산오폐수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가축분뇨에 대한 정화시설의 신고 및 허가대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터이다. 한국의 낙농도 이제는 단지 원유의 생산이라는 경영체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비시장적 요소를 창출한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경영에 임할 때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낙농 경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동시에 개방화 국제화에 따라 또 하나의 부담이 될 그린라운드(GR, Green, Round)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 낙농가의 자조적 노력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신기술은 그 특성에 따라 낙농가 개개인이 개발하거나 습득하기가 불가능한 부문도 없지 않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낙농업의 발전 주체는 낙농을 직접 경영하는 낙농가이며, 따라서 낙농업은 낙농가 스스로에 의해서 주도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낙농가는 그들의 힘을 응집시켜야 하며, 이 힘을 응집시키는 집단이 협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자생적 생산자단체이다. 생산자 단체는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절감, 제품의 개발 등과 관련된 새롭고 다양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시장개발과 소비확

대까지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낙농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생산자단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용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협동조합의 육성은 상부상조의 원칙에 의한 생산비절감과 생산성향상에 관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데에도 중요성이 있지만, 신선한 유제품시장을 낙농가 스스로의 힘에 의해 주도하고 유통개선을 선도할 수 있다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익의 극대화에 경영의 목표를 두고 있는 사기업인 상당수의 유업체는 경영의 생리상 값싼 수입원료를 생산하여 가공마진이 높은 유제품이나 수입완제품의 판매에 주력할 것이며 그러한 제품에 대한 소비촉진활동도 강화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업체 지향주의적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유가공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낙농가의 자조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산 신선우원유를 원료로 하는 신선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소비촉진활동에 낙농가 스스로 참여하고 감당해야한다. 이러한 농가의 이익을 위한 활동기반은 어디까지나 낙농가 스스로의 힘에 의해 부담되는 자조금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자칫 자조금제도는 낙농가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추가적인 비용요소로 오해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낙농가가 생산한 우유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해 수익자인 낙농가가 스스로 부담하는 투자인 것이다. 원유의 안정된 공급은 유제품의 안정된 시장수요가 전제되어야 하며 안정된

수요와 공급은 낙농가의 이익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조금이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모든 생산자가 자진납부하여 모아진 산업기금으로서 생산자단체가 관리 운영하되 주로 생산성 향상과 제품개발, 소비확대 등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등에 이용되는 생산자의 자구적 기금이다.

자조금제도는 생산자 스스로가 자기 산업에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자조금제도가 다양하게 채택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그 효과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입증되고 있다.

6. 낙농경영자의 경영능력 향상

미래의 낙농은 철저한 효율과 경쟁의 추구를 통해 낙농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낙농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다. 자기경영체의 경영과 관련되는 모든 의사결정의 당사자는 경영자 자신이다. 따라서 경영의 실제적 주체도 경영자 자신이다. 낙농을 경영하는 경영주도 일반회사의 경영주와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경영의 규모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동일한 경영여건속에서 경영자의 경영능력에 따라 경영성과는 얼마든지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

낙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양기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영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낙농경영자는 그 어느 사업을 경영하는 자보다도 다양한 능력의 소지자라야 한다.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의지 그리고 낙농경영자로서 긍지가 필요하다.

Ⅲ. 맺는 말

낙농경영의 합리화문제를 거론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흔히 농가차원에서 문제를 제시해 왔으며, 따라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농가내에서 생산비를 어떻게 절감해야하고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야한다는 것만 주로 강조해 왔다. 이러한 사고는 낙농경영을 단순히 원유의 생산활동만으로 인식하거나 증산일변도의 생산지향적 관점에서만 이해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낙농경영은 이미 전업화 경향이 뚜렷할 뿐아니라 상업적 낙농으로 정착이 되었다. 상업적 낙농경영을 영위하는 낙농가는 양적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소비시장의 수요와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상품성의 향상과 시장개발에까지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낙농경영

의 궁극적 목표인 낙농소득이나 순수익의 극대화는 원유생산과정의 전후단계에 있는 투입과 생산, 가공, 유통부문이 함께 어우러져서 소비자를 만족시킬만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가분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오늘의 낙농경영은 단순히 원유의 생산활동에만 집착되어서는 아니되고 농업관련산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종합적 낙농산업으로 간주되어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낙농경영의 안정화 방향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고려한 방향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부연하는 것은 이러한 대책은 반드시 낙농가의 자구적 노력이 1차적이지만 유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병행됨으로써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의 낙농 메모

구분	1월	2월
일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해의 경영실적을 총 정리하는 달로서 한해를 반성, 검토하여 새해의 경영 계획을 세우고 우군의 규모, 사료 수급계획, 인력계획, 사료작물 재배 및 생산계획 등의 타당성을 점검한다. • 1월 1일 현재의 고정자산 평가를 위한 기초 대장을 작성하고 번식기록, 산유량 항목에 사료급여 등과 같은 정확한 기록을 유지한다. • 우사에서 사용하는 물은 미지근하게 데워서 사용하고 착유기, 냉각기 등은 특히 더운 물로 씻어 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동안은 운동 부족과 일광 부족이 되기 쉬우므로 따뜻한 날은 운동장에 내보내 일광욕과 솔질을 실시한다. • 운동장에는 찬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바람막이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 • 바람이 강한 추운날 착유 직후 찬바람을 쐬면 유두에 동상이 생기기 때문에 바세린등을 발라 예방한다.
사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한 북풍과 얼은 조사료는 소의 생리장애와 우유의 생산에 영향을 주므로 사일레지나 사료용 무우 등은 얼지 않도록 하여 급여한다. • 송아지를 추위로부터 보호하려 할 때 우사의 환기 불량에 문제가 되기 쉬우므로 환기나 보온 특히 틈으로 들어오는 섯바람과 습기가 지나치게 많은 것에 주의한다. • 송아지 우리(Calf hutch)에 사육하는 때에도 사료급여가 적정하면 정상으로 발육하고 호흡기나 소화기의 장애도 적은 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일레지와 건초, 볏짚 등 동계사료의 저장량을 확인하여 청초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조정 급여한다. • 영양적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의 결핍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양분 균형에 노력하고 비타민 및 무기물 첨가제를 계속 급여한다.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조사료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비타민A 결핍이 문제가 되어 저수태, 발육 불량을 일으키기 쉽다. • 송아지 분만을 고려하여 분만우의 사양관리에 주의한다.